

# 평창군·태백시시설관리공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8.13 11:20

각 210만 원씩 총 420만 원...지역 상생·발전기금 조성



평창군·태백시시설관리공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13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기부에 나섰다.

양 기관은 각각 21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기부해 두 지역의 발전기금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상호기부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진행한 교차 기부에 이어 2년 연속 주도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보여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양 기관은 이번 기부를 통해 복지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청년·고령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인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상생의 약속”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종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번 상호기부가 두 지역의 우호 증진과 공동 번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